

20세기 한국의 혼례 문화 변천에 관한 연구*

- 서울과 경상도의 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Korean Wedding Culture in 20th Century*

- Focused on Seoul and Kyungsangdo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부 교수 홍 나 영

박사과정 이은진 · 박선희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ong, NaYoung

Doctoral Course : Lee, EunJin · Park, SunHee

◀ 목 차 ▶

I. 머리말

II. 한국 혼례문화의 원형

III. 사례를 통해서 본 20세기
혼례 문화의 변천 양상

I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wedding culture of Seoul and Kyungsangdo. This paper is a qualitative study that is based on interview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became clear that before the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 there wer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wedding culture in each region. Howeve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wedding customs in each region have been degenerated or exterminated, in tandem with the influx of customs from other regions, due to the dramatic urbanization of South Korea, and the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that appeared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Furthermore, wedding customs were transformed from ceremonies based on a regional and kin-based community into those that were no more than mere events, which was derived from the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of Korea.

Corresponding Author: NaYoung Hong, Laboratory of Traditional Costum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1-1 Daehyu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el: 82-2-3277-3467 Fax: 82-2-3277-2852 E-mail:
nyhong@mm.ewha.ac.kr

* 이 논문은 2000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KRF-2000-B00162)

주제어(Key Words): 혼례(marriage), 혼수(articles necessary to the marriage), 예단(gifts given as part of the marriage tradition), 예물(wedding presents from in-laws to a bride/bridegroom), 혼수용 세간(furniture or appliances for marriage prepared by a bride/bridegroom), 예식(ceremony), 의례복(ceremonial robe)

I. 머리말

개화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산업화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혼례 풍속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과거 유교사상 하에서의 혼례문화 특성이나, 일제시대 이후 변화된 혼례문화에 대해 다루고 있을 뿐, 근대화 과정 이후의 혼례문화변화에 대한 체계적 고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국 비교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시도로서,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두 지방을 중심으로 혼인 예식, 예복, 혼수 풍속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의 일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한 질적 연구로서, 면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 선정은 임의적 표집 방법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므로, snowball sampl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적어도 해방 전부터 양가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던 가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혼례 당시에도 가족과 함께 해당지역에 거주하였던 여성이다. 연구시기는 혼례연도 기준으로, 생존자를 찾기 힘든 1930년대 이전 시기는 제외하고 면접 가능한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를 10년을 단위로 구분하였다. 두 지역을 각 연도별로 각각 5명씩을 면접 조사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면접 대상자는 총 58명이었다. 사례 표기는 '서울40-1'과 같이 '지역·결혼연도-1·2·3·4·5'의 형식으로 하였다. 피면접자의 개인·환경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II. 한국 혼례문화의 원형

1. 고대 사회의 혼례 문화

우리 나라 고대 혼인 의례에 대한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傳의 기록을 보면 고구려에는 혼인 초에 신랑이 신부집에 머물면서 처가와 본가를 왕래하는 '서류부가(婿留婦家)'의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 당시의 혼수에 대한 의식을 알려주는 대목이 있는데,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北史 列傳 高句麗條, 隋書 列傳 高麗條)'라 하여 혼례를 치르는데 물질을 교환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고, 따라서 신랑측에서 잔치를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이외에 혼수를 크게 장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준다.

혼수에 대한 태도는 고려시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공의 고려도경(권 22 잡속조: 111)에서는 '귀인이나 선비 집안에서는 혼가(婚家)에 대한 빙폐(聘幣)를 쓰나 백성에 이르러서는 다만 술이나 쌀을 서로 보낼 뿐이다'라고 하여 상류층에서는 비단을 혼수로 마련하였고, 서민층에서는 혼인잔치에 사용될 음식을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정근 1998: 31).

이러한 서류부가(婿留婦家)의 풍속은 고려 이후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며(박해인, 1988), 음식·피륙 등은 이후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주요 혼수품목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 조선 사회의 혼례 문화

친영제(親迎制)에 기초를 둔 주자가례(朱子家禮)가 고려 말에 도입되어 조선시대에 보편화되면서 혼례규범의 이상형으로 제시되었으나, 실생활에서 행해진 관행은 의혼(議婚), 납채(納采), 연길(涓吉), 납폐(納幣), 대례(大禮)¹⁾, 우귀례(于歸禮)²⁾의 6단계

1) 전안례(奠雁禮), 교배례(交拜禮), 합근례(合巹禮)를 포함하는 과정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주자가례의 친영제

〈표 1〉 면접자의 개인·환경적 특성

지역	사례	출생	결혼	친정		시대		결혼형태	합	결혼식형태	결혼식장소	폐백
				부	모	부	모					
서울	40-1	1913	1930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전통식	친정 대청	○
	40-2	1916	193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조선일보사	○
	40-3	1921	1943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경기여고강당	○
	40-4	1925	1943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경상도	40-1	1925	1943	경남 함안	경남 마산	경남 함안	경남 함안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40-2	1925	1943	경남 고성	경남 고성	경남 창원	경남 창원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40-3	1928	1945	대구 달성	경북 경산	대구 달성	대구 달성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40-4	1928	1948	경남 의령	경남 함안	경남 마산	경남 마산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40-5	1929	1949	경남 창녕	경남 밀양	경남 함안	경남 함안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서울	50-1	1928	1950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YMCA회관	○
	50-2	1934	195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50-3	1933	1957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50-4	1935	195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경상도	50-1	1931	1950	경북 칠곡	경북 칠곡	경남 사천	경남 사천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50-2	1933	1955	경북 양동	경북 영천	경남 양산	경남 양산	중매+연애	○	전통식	친정 마당	○
	50-3	1933	1955	경남 김해	경남 김해	경남 김해	경남 김해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50-4	1934	1955	부산	부산	김해	김해	중매	○	서양식	선상	○
	50-5	1935	1958	경북 고령	경북경산	경북의성	경북의성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서울	60-1	1931	1962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60-2	1937	1964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YWCA	○
	60-3	1942	1968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60-4	1942	1968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YWCA	○
	60-5	1945	196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경상도	60-1	1941	1962	경남 의령	경남 의령	대구	대구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60-2	1941	1964	경남 의령	경남 의령	경남 합천	경남 합천	중매	○	전통식	친정 마당	○
	60-3	1941	1964	경남 김해	경남 김해	경남 밀양	부산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60-4	1940	1965	경남 김해	경남 김해	부산 동래	부산 동래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60-5	1946	1968	부산	경남 양산	경남 의령	경남 의령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서울	70-1	1942	1970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2	1949	197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3	1948	1972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4	1949	1973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5		197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YMCA	○
경상도	70-1	1947	1970	경북 선산	경남 합천	경남 밀양	경남 밀양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2	1949	1974	경남 고성	경남 창원	부산	경남 마산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3	1950	1975	대구	경북성주	부산	부산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표 1〉 계속

지역	사례	출생	결혼	친정		시댁		결혼형태	합	결혼식형태	결혼식장소	폐백
				부	모	부	모					
경상도	70-4	1951	1976	대구	대구	경북 영양	경북 영덕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70-5	1950	1976	부산	부산	경남 김해	경남 김해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서울	80-1	1954	1981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2	1961	1983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3	1960	1984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4	1956	1984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5	1963	198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1	1956	1980	경남 창원	경남 마산	경남 창원	경남 합천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경상도	80-2	1957	1982	경남 남해	경남 남해	경북 경산	경북 경산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3	1960	1985	경북 상주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4	1962	1989	대구	대구	부산	부산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80-5	1966	1989	경남 창원	경북 안동	경남 창원	경남 밀양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1	1967	1994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서울	90-2	1971	1996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3	1975	1997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중매+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4	1975	1997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5	1973	1999	서울	서울	서울	서울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1	1964	1990	경남 진해	경남 진해	경남 함안	경남 함안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경상도	90-2	1964	1992	경북 영천	부산	울산 울주	울산 울주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3	1964	1996	경남 진해	경남 함안	경남 마산	경남 마산	중매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4	1972	1999	경북 의성	경북 구미	경북 경주	경남 양산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90-5	1972	1999	부산	부산	부산	대구	연애	○	서양식+폐백	예식장	○

였다(장철수, 1995: 140). 현재 우리가 전통 혼례 제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관행적 혼례절차로서, 고구려의 '서옥제(婿屋制)'로부터 내려온 고유의 관행인 입장제(入丈制)와 중국의 친영제(親迎制)를 절충한 반친영제(半親迎制)의 형식이다.

납징(納徵)으로도 불리는 납폐(納幣)는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에서 "성호(星湖)의 말에 의하면, 『주자가례』에는 폐(幣)만 말하고 징(徵)은 말하지 않고 있다. 고례(古禮)에는 납채에 기러기를 쓰고, 납징에는 폐(幣: 비단)를 썼으니, 징(贄: 예물)나 비단은 정성과 공경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징(徵)이란 성(成)이다. 납폐(納幣)함으로써 혼례를 이루는 것이다" 하였고, 『현토주해 사례편람(懸吐註

解 四禮便覽)』에 "비록 가난하여 냉수 떠놓고 혼인례를 행하더라도 전안(奠雁)하고, 교배(交拜)하고, 예물을 올리고 시부모를 뵈는 일은 폐할 수가 없다" 하여 혼례에서 혼수와 예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양반(兩班)의 딸 가운데 집안이 가난하여 혼수를 마련하지 못해 혼기를 놓친 경우 관에서 혼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초부터 제도화

(親迎制)와 달리 혼례가 신부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2) 신부가 시댁에 들어가 며느리로서 의식을 치름. 현구고례(見舅姑禮), 현우사당(見于祠堂) 등

되어있어³⁾, 당시 혼수 마련이 혼인을 치르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정도로 반가에서는 혼수 없는 혼인은 예(禮)가 아닌 것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수의 마련은 15세기 후반 사회가 안정되면서 부유하고 세력있는 집안을 중심으로 혼수사치가 점차 심해져, 규제를 마련하여 관의 이속(吏屬)과 의녀(醫女)를 보내어 감찰하도록 건의·시행하게 되었다[연산 8년 6월 무신(戊申)]. 그러나, '공상(工商)·복레(僕隸) 등 지극히 천한 사람들도 사치를 숭상하고 혼인할 때의 혼수는 화려하고 사치함을 힘써서 그 폐단이 이미 굳어져서 끝내 금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중종 17년 7월 임술(壬戌)]'는 등 이후에도 혼인 사치를 경계하는 상소가 계속되어 관의 규제가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왕자녀(王子女)의 혼례시 혼수 사치를 우려하며, 위에서 먼저 검약(儉約)을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도록 탄원하는 상소가 계속되는데, 이는 당시 지배계층의 혼인 사치가 일반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배계층의 혼인 사치가 성했던 것과 동시에, 이를 우려하는 사대부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유교사상에 근거하여 검약 정신을 가지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증보사례편람(增補四禮便覽)』의 “문중자(文中子)는 ‘혼인을 하는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지금 세속의 욕심많은 비루한 자들은 먼저 자장(資粧: 여자가 마련하는 혼수)의 많고 적음과 빙재(聘財: 신랑이 마련하는 예물)의 많고 적음을 묻고, 속이거나 약속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으니, 이는 바로 거간들이 흥정을 붙이는 일이다. 어떻게 대장부가 할 일이겠는가?...그러므로 혼인을 의논함에 있어 재물을 언급하는 사람과는 혼인하지 말아야 한다”와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 “고례(古禮)에 납징(納徵)에 현훈(玄纁) 속백(束帛)과 녹피 한 쌍을 썼다...현훈(玄纁)을 쓰는 것은 음양이 갖추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주자(朱子)가 말하기를 폐백에는 색있는 비단을 쓰는데 빈부에 따라 적당하게 하되, 적어도 둘이고, 많아도 열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기록에서 혼인할 때 물질

교환을 경계하고, 최소한의 피록을 중심으로 예를 표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혼수 사치 풍속은 17세기 이후 농업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조선 후기 사치 풍조, 신분제의 변화, 정치 사회적 혼란이 나타나면서, 중인이나 상인에게 파급되어, 질적·양적으로 가능한 많은 혼수를 장만하고자 하는 호화 혼수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김정근, 홍형욱 1996: 196).

3. 개항기와 일제시대의 혼례 문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는 직·간접적으로 수입된 서구 문물과 새로운 사상의 흐름의 영향을 받은 시기로 생활문화의 변동기라고 할 수 있다(박혜인, 1991: 49). 이 변동기의 특징으로는 전통적 의례의 형식이 변화하거나 간소화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에도 영향이 미쳐 ‘신식’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혼례 형식에 변화를 일으킨 첫 번째 요인으로 종교를 들 수 있다. 당시 전통 의례는 서구적 시각에서 비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기독교식 혼례’를 권장하는 등 ‘신식 결혼식’은 주로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를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종교적 의례의 하나였던 것이 보편화되어 1930년대에 전문 예식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예식 절차로 독립하게 되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1934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의례준칙(儀禮準則)》을 들 수 있다. 이는 전통의례에 기반을 두고 세부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일제에 의해 강요된 것이긴 했지만, 계몽운동가들 역시 비용과 복잡한 절차 등 전통 혼례의 폐단을 지적하

3) 태종 7년 ‘의정부(議政府)에서 상서(上書)하여...양반(兩班)의 딸 가운데 나이 30이 지나도록 집안이 빈궁하여 시집가지 못한 자는, 물어 조사하여 관가에서 혼수를 주어서 출가하게 할 것’

세종 10년 ‘예조에서 계하기를... 비록 부모 형제가 있으나, 빈궁하여 혼수(婚需)를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놓치는 자도 또한 간혹 있습니다. 청컨대...국고의 묵은 쌀을 주어서 혼수를 마련하게 하고...’

던 시기였으므로 혼례의 간소화와 신식혼례의 보편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혼례과정에 일본 문화의 요소가 첨가되어 피로연이 잔치란 단어를 대신하게 되었고, 답례품 풍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과 소수의 상류층, 지식인을 제외하면 전통적·봉건적 생활양식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이므로(장하경, 1996), 도시에서는 '신식' 혼례가, 농촌에서는 '구식'이라고 하는 전통 유교식 혼례가 지배적으로 행해지는 이중구조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반인들 사이에도 기존 혼례의 폐단을 고치고자 하는 생각이 존재하였으므로 '신식결혼'은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는 과거의 혼례와 신식 혼례의 병존 시기이면서, 일본식 혼례와 서양식 혼례의 영향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혼속이 점차 사라지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황경애, 이길표, 1994).

이 때 혼수는 신분제가 철폐됨에 따라 혼수의 금액이 사라져 계층에 구분 없이 양적·질적으로 증대되었고, 살림용품의 근대화가 이루어지면서 피륙과 의류, 신변잡품을 중심으로 마련되던 조선시대 혼수 규범에 변화가 나타나 전반적으로 품목이 다양하게 되었다. 근대의 혼수는 재산가치를 갖는 재화의 성격을 가졌으며, 그 가운데 신부의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구 등이 주요 품목으로 등장하였다. 오늘날 신부의 살림살이 마련의 혼수규범이 이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정근 1998: 82, 84).

III. 사례를 통해서 본 20세기 혼례문화의 변천 양상

1. 예 단⁴⁾

1940년대 서울 사례에서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모두 신부의 것만 준비하였다.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근친(親親) 때 신부의 직계·방계 여자 친족에게 저고리감 혹은 한복감을 보내었으며(경상40-1/2/3), 경우에 따라 친정아버지, 형제자매에게도 한복, 저고리감 등을 보내기도 하였다(경상

40-5). 특히, 경상40-2 사례는 "신랑이 처가에 처음 걸음할 때는 딸 낳아서 잘 키워줬다고 장모님께 치마·저고리 한 벌 선물하는 것이 인사다"라고 하여 서울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신부의 치마·저고리감은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모든 사례에서 필수적인 품목이었다. "옷감의 종류가 다를 뿐 아무리 못 살아도 상벌, 중벌로 치마·저고리감 두 벌(홍치마·초록저고리, 남치마·노랑저고리)은 넣어 준다. 어른들 말에 함에 온 치마·저고리감의 색이 진하면 시집살이 힘들다고 했다(경상40-1)", "치마·저고리의 수는 짝을 맞추지 않고 보통 치마보다 저고리를 하나 더 해준다(경상40-3)", "치마·저고리 두 벌(홍치마·노랑저고리, 남치마·분홍저고리)과 함께 저고리 하나를 더 넣어 보낸다(경상40-5)"고 하여 각 지역마다 구전되는 예단 관련 풍습이 존재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의 경우 서울은 신부 위주였으며, 경상도는 신부와 최소의 직계가족 위주였다. 그러나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두 지역의 전 사례에서 신랑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 외 여러 방계가족까지 포함되어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한편, 경상40-4 사례는 "돌아가신 시어머님께도 조상예단이라 하여 당목으로 만든 치마·저고리, 버선을 준비해서 묘지 앞에서 태웠다"고 하여 경상도에서는 돌아가신 시댁 조상에게도 예단을 준비하는 독특한 풍습이 존재하였다.

1950년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두 지역 대부분의 사례에서 신부의 것만을 준비하였다(서울50-1/2/4/5, 경상50-1/2/3/4/5). 통상 신부의 직계 여성 가족에게는 저고리감 혹은 한복감, 소

4) 본 논문에서는 '혼수'라는 용어를 '혼인에 드는 물품'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혼수를 '예단', '예물', '혼수용 세간'의 세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또, '예단'이라는 용어는 '혼례의 과정에서 신랑측과 신부측이 기념으로 서로 주고받은 물품'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품 등을 준비하는 경상도의 풍습이 이처럼 50년대에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한국전쟁 후 궁핍했던 당시의 사회상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40년대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 모두 통상 신랑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것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넓게는 그 외 여러 방계가족까지 포함되기도 하였다. 경상50-1/4 사례에서는 방계가족의 예단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또, 경상50-3 사례는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조상예단을 해서 산소에서 태웠다”고 하여 돌아가신 시어머님께도 조상예단을 했다는 경상40-4 사례와 일치한다.

신랑 것으로는 한복/한복감과 양복/양복감이 가장 일반적인 품목이었다. 사례에 따라 “신발은 해주면 도망간다고 해서 안 했다(경상50-3)”, “요즘은 구두하면 도망간다고 하지만, 나는 그 때 구두도 했다(경상50-2)”고 하여 금기시하는 품목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부모님 것으로는 한복/한복감 외에 버선, 요·이불, 퇴침, 주머니, 담배쌈지, 안경집, 노리개, 금비녀, 브로우치, 반상기, 수저, 병풍, 돗자리 등 매우 다양한 품목이 나타났다. 시형제자매에게는 한복/한복감 또는 양복/양복감, 버선, 양말, 넥타이, 셔츠, 바지 등 주로 의류를 준비하였으며, 그 외 직계·방계가족들에게는 버선, 주머니, 허리띠, 손수건 등의 소품류를 선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60년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서울의 경우 대부분 50년대와 마찬가지로 신부만을 대상으로 하였다(서울60-1/2/3/5). 그러나 경상도에서는 양복, 한복, 담배, 담뱃대 등을 신부 친정부모님의 것으로 준비하였다(경상60-1/3/5). 특히 경상60-1 사례는 “대구에서는 딸을 보내는 섭섭한 마음을 담배로 위로하라는 뜻으로 사위가 장모의 담배, 담뱃대는 필수적으로 사준다”고 하여 독특한 지방색을 엿볼 수 있다.

40·50년대에는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예단이 치마·저고리감, 양장감, 신발 등 주로 의류였으나 60년대부터는 의류뿐만 아니라 화장품, 핸드백 등도 포함되었다. 경상60-1 사례는 “치마·저고리수는 짝을 맞추지 않는다 해서 저고리를 하나 더

받았다”고 하여 40·50년대의 풍습과 일치하며, 경상60-1 사례는 “실은 명줄이라 해서 함에 다 넣었다. 인두하고 가위는 친정에서 보내면 못 산다고 해서 시댁에서 보내주는 함에 꼭 들어 있었다”고 하여 필수적인 품목과 금기하는 품목이 각각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에는 두 지역 모두 신랑,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방계가족까지 포함되었다. 경상60-4 사례는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옥양목으로 바지·저고리, 두루마기를 만들어 제사지내고 태웠다”고 하여 돌아가신 분께도 조상예단을 하였다는 이전 경상도 사례들(경상40-4, 경상50-3)과 일치한다. 또, 50년대까지는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으로 통상 신랑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의 범위까지 옷, 소품 등 비교적 간소한 물품을 보내었으나, 60년대부터는 그 범위가 방계가족까지 확장되었으며, 그 종류도 각종 보석류, 밉크코트, 현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화·고가화(高價化)되었다.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이 40·50년대는 대부분 직계가족 중심이며, 방계가족까지 포함된 경우에도 버선, 주머니 등의 소품류 위주인데 비하여, 60년대에는 대부분의 사례가 방계가족의 범위까지 포함되며, 방계가족 예단도 소품류가 아닌 한복/한복감 또는 양복/양복감, 와이셔츠, 스웨터, 이불 등으로 변화되었다. 50년대에 이어 60년대에 방계가족에게 예단을 현금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서울60-3, 경상60-2).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보내는 예단으로 “신발은 신고 달아난다고 해서 안 해줬다(경상60-1)”고 하여 신발류를 금기시하였다는 50년대 사례(경상50-3)와 일치한다.

1970년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40·50·60년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대부분 신부의 것만을 준비하였다. 반면, 경상도의 경우는 근친 때 신부 친정어머니의 한복/한복감을 보내었으며, 친할머니에게 담뱃대와 고무신, 자매에게 이불, 기타 방계가족에게 양말, 버선을 준비한 경우도 존재하였다(경상70-1/2/4).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예단으로 신부의 치

마·저고리감은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필수품목이며 그 외 양장감, 코트, 가죽코트, 밍크목도리 등의 류의 종류도 다양화되었다. 또 화장품, 핸드백 등 품목의 다양화 경향은 60년대에 이어 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두 지역 모두 60년대와 마찬가지로 신랑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방계가족까지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고 물품의 종류와 규모도 다양화되었다. 시부모님께 보내는 예단은 한복/한복감, 양복/양복감 등의 의류와 요·이불, 보료, 방석 등의 침구류가 주된 품목이며,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방계가족에게는 한복/한복감, 이불이 일반적인 품목이었다. 경상70-5 사례는 “시아버님은 돌아가셔서 조상예단용으로 판매하는 비싸지 않은 바지·저고리를 사서 제사 상에 었었다”고 하여 조상에게도 예단을 준비하는 풍습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과반수 이상의 사례들(서울80-1/4/5, 경상80-2/3/4)에서 신부의 것뿐만 아니라 신부 친정부모님, 형제자매의 의류가 포함되었으며, 넓게는 방계가족까지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는 이전 70년대까지 경상도 지역에서만 근친 때 신부의 여자 가족, 특히 신부의 친정어머니에게 간소한 선물을 준비하였던 것과 뚜렷이 대조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는 남성이 가장으로써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여성은 그에 종속되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남녀평등의 개념이 확산되고 여성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보내는 예단으로 신부의 한복감은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필수품목이며, 품목의 다양화 경향이 계속되었다. 또, 예단에 현금이 포함되는 사례가 50·60년대에 이어 계속 등장하였다(서울80-4, 경상80-4/5).

한편,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두 지역 모두 60·70년대와 마찬가지로 신랑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배우자와 기타 방계가족까지 포함되었다. 시부모님께 보내는 예단은 70년

대와 마찬가지로 한복/한복감, 양복/양복감 등의 의류와 요·이불, 보료, 방석 등의 침구류가 주된 품목이며, 그 외 반지, 노리개, 병풍, 화문석 밍트코트 등이 등장하였다.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와 기타 방계가족의 예단도 70년대와 마찬가지로 한복/한복감, 이불이 일반적인 품목이었다.

1990년대에도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신부의 것뿐만 아니라 신부 친정부모님의 의류 등이 포함되었으며(서울90-1/2/4/5, 경상90-1/3/4/5), 형제자매, 방계가족의 예단 대신 현금을 보내기도 하였다(서울90-4, 경상40-1/4).

신부측에서 신랑측으로 보내는 예단은 60·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두 지역 모두 신랑뿐만 아니라 시부모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기타 방계가족까지 이루어졌다.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예단을 준비하는 서울과 달리 경상도에서는 “시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옷을 사서 태웠다(경상90-1)”, “윗대, 증조할아버지까지는 돌아가신 분께도 해야 된다고 했다. 옛날에는 무명으로 만들었다는데 나 때는 하얀 한지로 한복을 지어 결혼하고 처음 산소 갔을 때 태웠다(경상90-4)”고 하여 죽은 사람에게도 간소한 예단을 하던 ‘조상예단’ 혹은 ‘죽음예단’이라고 하는 풍습이 9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보내는 예단 항목에서 경상90-1 사례는 “구두는 신고 도망간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단으로는 안 한다”고 하여 50년대 이후 예단으로 신발류는 하지 않는다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존재하였다. 시부모님 예단으로는 이전의 한복/한복감, 양복/양복감의 의류와 침구류 외에도 반지, 목걸이, 노리개, 핸드백, 반상기, 수저, 교자상, 돗자리, 병풍, 화문석, 트렌치코트, 밍크코트 등 그 품목이 수없이 다양해졌다. 또 시부모님이나 시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경우에 따라서는 방계가족까지도 현금으로 예단을 대신하거나 예단과 함께 별도의 현금까지 주는 경우도 생겨났다. “신랑집에 500만원을 주고, 다시 200만원을 받았다(서울90-3)”, “물건뿐만 아니라 돈도 주고받았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간 액수의 반을

신랑집에서 다시 신부집에 돌려준다. 옛날에는 봉투마다 받을 사람 이름을 다 적어서 보냈는데, 요즘은 총액수를 봉투 하나에 넣어서 보낸다(경상90-4)”고 하여 새로운 예단 풍습을 엿볼 수 있다.

2. 예물⁵⁾

1940년대는 예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주는 예물로 반지나 가락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포함되었으며 비녀, 뒤꽂이 등의 머리 장식품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주는 예물은 주로 반지, 시계, 만년필 등이었다.

1950년대도 예물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두 지역 모두 신부에게 주는 예물에 반지나 가락지가 반드시 포함되었으며, 현재 필수적인 결혼 예물로 여겨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였다(서울50-3·경상50-2). 40년대와 마찬가지로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주는 예물은 주로 시계, 만년필, 반지였으며, 커피스·넥타이핀 세트, 지갑·벨트 세트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960년대는 두 지역 모두 예물의 수나 종류가 늘어났다. 40·50년대와 마찬가지로 반지 혹은 가락지는 신부에게 주는 필수 예물이었다.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주는 예물로 시계가 60년대 모든 사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신부측에서 신랑에게 주는 필수 예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 대부분의 사례에서 신랑의 반지 또한 점차 필수 예물이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60-1/2/4/5, 경상60-2/3/5). 그밖에 금, 은, 옥, 비취, 호박, 산호 등의 전통적인 보석들뿐만 아니라 루비, 오팔 등 새로운 보석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는 두 지역 모두 예물의 수나 종류가 늘어나는 60년대의 경향이 계속되었다. 70년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신랑·신부 양쪽 모두 반지와 시계를 예물로 주고받고 있어 결혼 예물로서 반지와 시계가 필수적인 예물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서울70-1/2/3/4/5, 경상70-1/3/4/5). 또, 다이아몬드 반지가 70년대에는 보다 일반화되었다.

1980년대는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을 모두 갖춘 세트(Set)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대는 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시계와 반지가 결혼 예물로서 필수화되었으며, 특히 다이아몬드가 보편적인 예물로 자리잡게 되었다. 신부에게 주는 예물은 세트화(Set)가 더욱 뚜렷해졌다.

이상과 같이 예물 항목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지역 모두 후대로 내려올수록 예물이 다양화·고가화되었으며, 각 시대를 대표하는 품목이 나타났다. 이러한 공통된 예물 품목, 즉 ‘필수 품목’의 등장은 중산층의 고소득층을 모방하려는 모방심리인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s)가 경제성장에 따라 대두되기 시작, 혼례문화에 작용되었음을 의미한다.

3. 혼수용 세간⁶⁾

1940·50년대 주요 혼수용 세간은 두 지역 모두 침구류, 바느질 용구, 본인의 의류, 가구류, 주방용품류, 그 외 각종 보자기, 수저집, 요강, 세숫대야 등이었다.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본인이 평생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류, 침구, 바느질 용구였으며, 이러한 것들을 집에서 직접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아무리 못 해가도 딸 입을 건 빛을 지더라도 해 준다(서울40-1)” “혼수는 신부의 옷이 첫째로,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을 해주는 걸 말한다(서울40-3)”, “꿀무도 만들고, 수저집, 상보, 방석에 수 놓아서 해 갔다(서울40-2)”라고 하였다. 또, “가구는 보통 장, 경대 정도였다(서울50-3)”, “요강은 필수 품목이었다. 요강에 목화솜을 가득 넣어 줬다. 부자로 살라고, 또 밥그릇에도 찹쌀, 팥을 담았다(서울50-2)”고 하였는데 반상기에

5) 본 논문에서는 ‘예물’이라는 용어를 예단과 구분하여 ‘신랑과 신부가 서로 주고받는 폐물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6) 본 논문에서 ‘혼수용 세간’은 ‘혼례 후 신랑·신부가 새 살림을 차리는데 필요한 살림살이’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참쌀, 쌀, 팥 등을 담아 보낸다는 것은 서울40-1 사례와 일치된다.

한편, 서울에서는 혼수용 세간 중 요·이불을 신부측에서 일입하여 준비하였으나, 경상도에서는 재료를 신랑측에서 준비하여 함(函)과 함께 신부측으로 보내면, 신부측에서 바느질하여 혼수로 가져갔던 것으로 나타나 두 지역 간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 “시택에서 이불감을 보내고 꾸미기는 친정에서 했다(경상40-2)”, “신랑·신부 이불감은 시택에서 보냈다(경상40-3)”, “요·이불 재료는 시택에서 보내고, 만들기는 친정에서 했다(경상50-1)”, “신랑측에서 걸감은 물론이고, 속감, 목화솜까지 함 보낼 때 함께 보냈다(경상50-4)”고 하였다. 또, 장, 경대 등의 가구류를 서울의 모든 사례에서는 신부측이 준비하였으나, 경상도는 과반수 이상의 사례에서 신랑측이 준비하였다(경상40-1/2/3/5, 경상50-3/4). “경대, 농은 시택에서 했다(경상40-1)”, “가구는 시택에서 해줬다. 잘 사는 집에서는 조그만 가구를 해 가지고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불장, 옷장 같은 큰 가구는 시택에서 해 주었다(경상40-5)”, “농 같은 가구는 시택에서 했다(경상50-3)”고 하였다. 특히, 경상50-4 사례는 “장, 화장대는 남자 집에서 했다. 신랑측에서 집도 해 주고, 가구도 해 주고, 심지어 어떤 집에서는 감사하다고 신부집에 농까지 해 줬다”고 하여 경상도에서는 혼수용 세간 준비에서 신랑측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다.

1960·70년대 주요 혼수용 세간은 두 지역 모두 침구류, 바느질 용구, 의류, 가구류, 주방용품류, 가전제품류와 그 외 보자기, 요강 등이다. 60년대에는 공업의 발달로 가전제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텔레비전, 냉장고, 다리미, 재봉틀 등의 가전제품 품목이 일부 등장하였으며, 70년대에는 60년대까지 혼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의류 항목이 수와 종류 면에서 현저히 줄어들었다. 서울60-1 사례는 “그 때는 혼수라는 게 살림살이 다 해 가는 거였다. 옷은 평생을 입도록 해 가는 거다. 꼭 필요한 것들만 했지 허세로 하진 않았다”라고 하였다. 또 서울60-2 사례는 기억나는 혼수 품목으로 “첫날 밥하라고 12첩 반상기에 팥, 쌀, 참쌀을 소복히 담아 주셨다”라

고 하였다. 서울70-4 사례는 “당시에는 여자가 솔, 수저 이런 거 했다. 하다 못해 떡시루까지 해 갔다. 결혼한 후 살림살이 산 기억이 별로 없고, 지금처럼 가전제품을 가져가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여 혼수가 가전제품 등 부피가 크고 비싼 물건보다는 주방용품 등의 소품 위주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40·50년대와 마찬가지로 요·이불을 서울에서는 신부측에서 준비하였으나, 경상도에서는 재료는 신랑측에서 보내고 만드는 것은 신부측에서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경상60-1/3/4/5, 경상70-1/2/3/4/5). “요·이불 감하고 솜을 시택에서 취서 친정에서 꾸몄다(경상60-4)”, “신랑·신부 요·이불은 시택에서 해주는 거다. 재료를 보내주면 꿰매는 건 친정에서 하는 거다. 오복을 다 갖춘 사람들이 모여 하루에 다 꿰매야 했다. 선택된 사람들은 자기 자식 결혼할 때 품앗이도 되고, 오복을 다 갖췄다고 인정받은 거니까 자기들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경상70-2)”, “함에 한복감이랑 양장이 다 들어있었고, 요·이불 재료, 솜 등은 따로 보자기에 싸여 있었다(경상70-5)”고 하였다. 장, 경대 등의 가구류도 40·50년대와 마찬가지로 서울은 모든 사례에서 신부측이 준비하였으나, 경상도는 과반수 이상의 사례에서 신랑측이 준비하였다(경상60-1/2/3, 경상70-1/2/3). “경상도에서는 가구류는 시택에서 다 했다(경상60-2)”, “경상도는 전부 시택에서 농을 준비했다(경상70-2)”, “예단에 돈이 많이 들었고, 농, 화장대는 시택에서 준비했다(경상70-3)”고 하여 경상도 지역에서는 신랑측이 혼수용 세간 준비에 비교적 많이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90년대 주요 혼수용 세간은 두 지역 모두 침구류, 가구류, 가전제품류, 주방용품 등이다. 두 지역 모두 60·70년대까지는 혼수의 의미가 신부의 의류, 바느질 용구 등 신부 본인이 평생동안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의 개념이었으나, 80년대부터는 그 개념이 변화되어 가구류, 가전제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해졌다. 이처럼 과거 친정어머니의 ‘정성’으로 표현되었던 혼수가 오늘날 양과 질의 증가와 더불어 대량생산에 의한 ‘물질적 살림살이’의 의미로 변화된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신주거제와 경제성장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또, 후회하였던 품목으로 여러 사례에서 목화솜 이불을 들고 있는데, 이는 좌식생활에서 입식생활로 전환되면서 주택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함에 따른 것이다(서울80-1/3/5, 경상80-1/2/3/5, 경상90-1/2/3/4).

한편, 혼수용 세간 중 요·이불을 서울 지역 모든 사례에서는 신부측이 준비하였으나, 경상도에서는 상이불 혹은 예단이불이라 하여 재료는 신랑측에서 보내고 신부측에서 바느질 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색이 단편적으로 남아있음을 볼 수 있다(경상80-2/5, 경상90-4/5). 그러나 가구류는 80·90년대의 모든 사례에서 신부측이 준비하고 있어 과거 장, 경대/화장대 등 규모가 큰 가구류를 신랑측에서 준비하였던 경상도의 풍습은 사라져 지역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예복과 예식

1) 정혼/약혼

전통 혼례의 단계 중 의혼(議婚), 납채(納采), 언길(涓吉)의 절차는 양가 상견례나 약혼의 절차에 사주 교환과 택일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전통 양식과 서양식의 절충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약혼식(約婚式)은 1934년 조선총독부가 혼인에 대한 법적인 규정으로 발표한 '의례준칙(儀禮準則)'에서 서로 혼인을 약속하는 자리로서 사주단자를 교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다(김시덕, 2001: 86). 이는 전통 혼례 의식에서 의혼(議婚), 납채(納采)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인데, 납채(納采)는 혼약이 이루어져 구두로만 약속한 혼인에 대해 서면의 형식으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약혼식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양가가 혼인하기로 결정한 후 '사주'를 보내는 것을 약혼의 징표로 삼았다(박혜인, 1988). 이러한 인식은 서울40-3의 사례 "그 사주단자만 오면, 죽으나 사나 그 집으로 가는 거지. 약혼식이 어디 있어?...사주단자라는 거 그 지고 오는 종이, 그거 인제 신랑 생일생시 적어서 다른 것 아니야. 빨간실, 남실로 묶어서 짙어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그게 약혼식 한 거지"와 경상40-4의 경우 "사성은 오색색실로 감아가지고, 사성이란 결혼을 하겠다는 언약이지" 등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전 시대에 걸쳐 약혼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울의 경우 약혼식 도입기, 성행기, 생략 또는 이벤트적 성격을 갖는 약혼식의 혼재기를 거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40년대와 50년대에는 사주단자를 교환하는 전통적 방식(서울40-1/4, 50-2/4)과 일가 친척이 모여 간단하게 약혼식을 치르는 방식(서울40-2, 50-3)이 함께 나타났다. 50년대 약혼식을 치르는 경우에 신부는 노랑 저고리에 다홍 치마를 착용하여 이후 분홍색 치마저고리를 착용하는 시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성격을 보인다. 60년대에서 80년대 전반기까지 서울 지역에서 약혼식은 혼례 절차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여(서울60-1/2/3/4/5, 70-2/4/5, 80-1/2/4), 이 때 양가 친척들의 상견례와 사주단자의 교환, 예물교환이 이루어졌다. 약혼식에서 신부들은 일반적으로 분홍색 계통의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고 신랑은 양복을 착용하였다.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이르러서 약혼식의 중요성이 감소하면서 약혼식이 생략되고 부모님 상견례정도로 간소화되는 경향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결들인 이벤트성 행사로 성격이 변화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난다. 90년대의 약혼식에서 신부는 드레스, 신랑은 턱시도를 착용하여 예복의 서구화가 정착된 모습을 나타내었다(서울90-5).

2) 함들이기

함들이기는 전통 혼례 단계 중 납폐(納幣)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인식 후의 폐백과 함께 전통 형식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인데, 최근 예식으로서의 성격이 약화되면서 생략·축소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함 받는 예식의 경우 서울에서는 떡시루 위에 함을 놓고, 쪽박을 깨는 등의 의식을 통해 결혼 생활의 행운과 복을 빌었다(서울40-1/2/3, 50-2/3, 60-1/2/4, 70-3/4, 90-5). 또한 청·홍 옷감을 잡아 아들

이나 딸을 접치는 의식이 나타나 전통적으로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음양 사상의 일면을 보여주었다(서울40-3/4, 50-3, 60-1/2/4, 80-3). 경상도 지역의 경우 촛불을 켜고 조상에 고하는 의식이 나타나 보다 정적(靜的)인 경향을 보였다(경상40-1/2/3/4, 60-3/4/5, 70-2, 80-4, 90-1/5).

함들이기 예식 변화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의식(儀式)의 간략화 경향이다. 앞에 언급한 예식들은 두 지역에서 모두 1960년대까지 흔히 행하여졌으나 1970년대 이후로는 점차 줄어들어 함들이는 절차를 간단하게 하거나 생략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그 예로 1970년대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시루떡 위에 함을 올리거나, 쪽박을 깨는 등 액막이 행위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으나, 청·홍 옷감으로 자손을 접치는 의식은 거의 생략되고 있다. 경상도 지역의 경우 90년대까지 촛불을 켜고 조상께 고하는 의식이 부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서울 지역에 비해 전통 의식(儀式)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상90-1/5).

두 번째 특징은 1970년대 이후 '함팔이'의 비중이 커진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80년대에 함들이기를 대표적 행사로 꼽았고, 예식이라기보다 '놀이'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함 값 흥정'은 정도가 심해지면서 함들이기 의식 자체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⁷⁾, 함들이기를 생략하거나 신랑이 직접 함을 메고 오는 등(서울90-4, 경상90-2/4/5)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것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 신부가 신행갈 때 짚불을 피우고 그 위로 넘어가는 절차가 있는 것(경상40-2/3/5, 60-2/4)에 비해 함 받을 때의 액막이 행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90년대에는 이전과 달리 쪽박 깨기를 하거나(경상90-4)와 쪽박 깨기와 짚불 넘기를 모두 행하는 사례(경상90-1)가 나타났다. 이것은 신부가 함이 들어오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과 함께 근대화·도시화 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이 퇴색된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시대에 따라 함진아비도 변화되었다. 40년대에는

서울 지역과 경상도 지역에서 하인이 함을 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하인은 한 집안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 뿐 아니라 동네에서 허드렛일을 맡아하는 사람을 이르기도 해서 경상40-3은 "동네 하인이라고 함지기가 있었어. 고지기라고 동네 일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이라고 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40년대 이후 하인이 함을 지고 오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고, 신랑의 형제나 사촌 등 일가 친척이 함진아비의 역할을 하다가 60년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경우 신랑의 친구가 함진아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비하여 경상도 지역의 경우 60년대까지 하인이 함을 지고 온 예가 있으며(경상60-1/2), 70년대부터 신랑 친구가 함진아비로 비중 있게 나타나지만, 서울에 비해 신랑의 형제나 사촌 등 친척이 함을 지고 오는 경우가 많았다. 90년대에 들어와서 신랑이 직접 함을 지고 오는 경우가 나타났다(서울90-4, 경상90-2/4/5).

예식과 함진아비의 변화 경향을 함께 고려해보면 서울 지역의 경우 경상도 지역에 비해 일찍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에서 지역적·현열적 공동체 개념이 약화되고 개인이 중심이 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함진아비가 하인, 일가 친척, 신랑의 친구로 변화되면서 함 값 흥정 등으로 예식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3) 혼례식

혼례복과 혼례식의 형식은 혼례 절차 중 서구 영향을 받아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 6·25 사변 등 혼란기 외래 문물의 영향과 산업화·도시화를 통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통 생활 문화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 예식의 형태는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서 공

7) 한국부인회가 전국의 20~60대 주부 1천8백45명에게 결혼의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절반이상인 51.5%가 "함잡이 관행은 생략하는게 좋겠다"고 대답해 이것의 폐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1994. 4. 14)

통적으로 전통양식에서 전통과 서양식의 절충식을 거쳐 서양식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보였는데, 시기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서양식으로 변화된 예식은 간략화 과정을 거쳐 이벤트의 성격을 나타내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 장소와 예복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혼례 장소는 혼례복과 혼례 양식의 변화 수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20년 왕세자 이은(李垕)의 서구식 혼례와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양식 등은 혼례복과 혼례식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장하경, 1996; 박혜인, 1991). 전통적으로 신부대 마당에서 행해지던 혼례는 서양식 절차를 수용하면서 1920년대 경부터 교회·절·신문사·학교 강당 등으로 장소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서울의 경우 1930년대 전문 예식장이 생겼고, 농촌에까지 전문 예식장이 보급되어 예식장 결혼이 보편화된 것은 60년대 후반 이후였다(황경애, 이길표, 1994). 서양식 혼례가 정착된 이후 1970년대를 전후로 한 기간에는 검소와 간소화를 장려하는 '가정의례준칙'과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예식이 간략화 되었으나 1990년대 과시적 소비 경향으로 변화되었다. 1994년 4월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이 허용된 것과 신랑 신부들이 '전시효과'에 집착하여 혼수보다 예식을 강조한다는 기사⁸⁾ 내용 등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복의 경우 서울지역의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이르는 기간은 전통 혼례복과 전통과 서양식의 절충식 예복이 혼재한 시기였다. 40년대와 50년대에는 신부가 노랑 저고리와 붉은 계통의 치마에 원삼이나 활옷을 입고, 신랑이 사모관대를 하는 전통양식(서울40-1/4, 50-2)과 신부는 흰색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쓰고 신랑은 모닝코트 또는 연미복, 양복 등을 입는 절충식(서울40-2/3, 50-1/3/4)이 모두 나타났다.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신부는 드레스에 면사포를 쓰고, 신랑은 양복을 입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정착되어 결혼 예복의 서구화가 이루어졌다. 90년대에는 신랑의 예복이 턱시도, 모닝코트, 연미복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이에 비하여 경상도 지역의 경우 1960년대까지 전통 예복을 착용한 예(경상 50-

1/2/3, 60-1/2)가 나타나고, 흰색 치마 저고리에 면사포를 쓴 절충식이 1970년 전후한 시기에도 나타나(경상 50-4/5, 70-1) 예복의 과도기가 서울 지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고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예복이 서양화되는 과정에서 신부의 예복은 '흰색 치마저고리에 면사포'의 전통과 서양의 절충형을 거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보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70-1의 경우 "드레스도 할아버지가 입지 말라해서 한복 입고 했어. 우리 때부터 드레스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볼륨있는거 보기 싫다고 못입게 했어요"라고 하여 서양식 예복인 드레스가 신부의 체형을 드러내므로 결혼 예복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은 경상도 지역에서 신부 예복의 서구화를 지연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신랑의 예복은 과도기를 거치지 않고 서양식 예복인 모닝코트, 연미복 등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남성복식과 관복이 외래 문물의 영향을 받은 반면에 여성복식은 전통 복식 구조를 유지하여 복식의 이중구조를 나타내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화된 신랑 예복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혼례복으로 서양복을 받아들인 초기에는 모닝코트(서울40-3), 연미복(서울50-1) 등 예복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며, 이는 서양식 혼례를 받아들인 집단이 서구 문물을 접할 기회가 많았던 소수 상류층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후 서양식 혼례가 일반화되고 혼례를 검소하고 간소하게 치르도록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신랑의 혼례복은 일반 양복의 형태로 변화되어 실용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경제 발전 이후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예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랑의 혼례복에 턱시도, 모닝코트, 연미복 등 다양한 서양 예복이 나타나게 되었다(서울90-3/4/5, 경상90-3/4/5).

4) 폐백(幣帛): 현구고례(見舅姑禮)

폐백(幣帛)의 사전적 의미는 '신부가 처음으로

8) 조선일보 (2001.9.3) 2001 '웨딩풍경' 따라가기

시부모를 뵈 때 큰절을 하고 올리는 물건', '윗사람이나 점잖은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가는 선물' 등으로 물질적인 것을 지칭하는 말이다(국립국어연구원, 1999c: 6582).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혼례의 마지막 단계, 전통 혼례의 현구고례(見舅姑禮)에 해당하는 절차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구고례(見舅姑禮)는 신부를 시댁(媿宅) 대소가(大小家)에 소개하고 가문의 새 구성원으로 흡수하는 의식이다. 따라서, 이 의식에 신랑은 제외되며 신부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신부와 신랑이 함께 절을 하는 풍습으로 바뀌어 행해지고 있다. 이때 절하는 범위는 대부분의 경우 시댁 어른들 혹은 시댁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신부 부모님의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백(幣帛)을 드리는 예식에서 신부와 신랑이 함께 절을 하거나, 친정 부모님을 중심으로 친정 가족들에게 예를 올리는 등의 변화 경향은 서울·경상 두 지역에서 모두 나타나 두 지역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조사 결과 폐백에 친정 가족들이 참여하기 시작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신랑 신부가 폐백 드릴 때 양가(兩家)에 모두 절을 드리는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차 일반화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경상70-2, 80-1/3, 90-1/3/4). 이에 비해 서울 지역에서는 90년대 들어서 친정의 참여가 나타났다(서울90-5). 경상80-1 사례의 경우 "시댁 먼저 하고 친정하고... 서울에서는 시댁만 해서 친정이 섭섭해 하더라"라고 하여 두 지역 예식에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들이거나 혼례복 등의 예에서 경상도 지역이 서울에 비해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어 보수성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경상도 지역에서 서울 지역과 달리 혼례 후 신부의 첫 근행(覲行) 때 신랑측이 신부 어머니께 혹은 가족들에게 예단을 드리는 풍속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경상40-1/2/3/5, 60-3/5, 70-1/2, 80-2/3, 90-1/3/4). 경상 40-5의 사례 "처음에 시집갔다가 처음에 친정 올 때 그때는 엄

마 치마저고리, 또 아버지 바지저고리 그리고 우리 형제간에도 저고리 하나씩... 그리고 혹시나 나를 길러주는데 공이 들었다거나 힘이 들었다거나 그런 공 든 사람이 있으면, 여기도 버선 몇 켤레하고 양말 몇 켤레하고 주기도 해"와 경상40-2의 사례 "나중에 신랑이 처가에 첫걸음 할 때는 장모한테 부모한테 딸 잘 낳아서 키워줬다고... 치마 저고리 한 벌이 큰 인사지"에서 혼례 후 신부측에 드리는 예단은 신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한 가족에 대한 배려, 사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폐백을 드릴 때 신부측 가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전통 의례의 고수 또는 변화의 개념이 아닌 신부의 부모님께 예를 올리는 전통 계승 측면에서 해석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폐백용 예복의 경우 60년대까지는 신부가 노란색 또는 녹색 계열의 저고리에 붉은 색 계열의 치마를 입고 수건을 드린 것이 일반적이었다. 혼례복으로 원삼 또는 활옷을 입고 폐백드릴 때에도 혼례 복식 그대로를 착용한 경우(서울40-1, 경상50-1/2, 60-1/2)도 있었으나, 경상40-2의 사례 "족두리 활옷, 그런건 벗어놓고, 홍치마 노랑 저고리만...", 경상40-4의 사례 "폐백 드릴 때 족두리는 안 써, 활옷도 안 입고 식 할 때만 입고 다 벗어줬어"와 같이 폐백 드릴 때는 치마 저고리에 수건만을 드리는 경우(서울40-4, 경상40-1/2/3/4/5, 경상50-3)가 많았다. 혼례를 서양식으로 한 경우 서울50-3, 서울60-2 사례를 제외하고, 폐백 드릴 때는 원삼이나 활옷을 착용하지 않았다. 서울50-1의 사례 "그냥 다홍치마에 연두 저고리에 이렇게 수건두르고, 그 때는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물자가 귀해서 원삼이나 그런 것을 입고 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어."에서와 같이 일제 강점과 6·25 사변으로 인한 자원 부족과 전통 예식의 약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삼·활옷 등의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수건은 필수적으로 갖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60-2의 사례 "나는 그날 수건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장갑을 끼워 주더라고, 손을 보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옆에서 시집의 사촌 형님이 장갑을 끼

위주더라고 내가 할 때, 피부를, 살갓을 보이는 게 아니라고"에서 볼 때 신부의 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금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 이후 예식장에 폐백실을 갖추고 폐백용 예복을 대여하게 되면서, 폐백을 드릴 때 신부는 원삼 또는 활옷에 족두리와 한삼을 갖추고, 신랑은 사모관대를 한 차림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서울 경상 두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전통 사회에서 혈연·지역 사회에서 담당하던 역할이 산업화·도시화로 인하여 혼례문화가 상품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IV. 맺음말

개화기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대화·산업화로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면서, 혼례 풍속에도 질적, 양적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다. 본 연구는 서울과 경상도 두 지역을 중심으로 혼례 예식, 예복, 혼수 풍속의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20세기 한국의 혼례문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혼례문화의 상품화로 인하여 두 지역 모두 후대로 오면서 예단의 양과 질이 점점 확대되고, 고가화 되었다. 예단의 전달이 과거에는 신부측에서 신랑측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수용된 남녀평등 사상이 정착되면서 양방향으로 변화되었다. 두 지역간의 차이를 보면 서울에서는 살아있는 사람만에게만 예단을 준비하는데 비하여, 경상도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에게도 간소한 의류를 예단으로 준비하였다. 또, 서울에서는 60년대까지 통상 신부측 친족에게 예단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경상도에서는 40년대부터 근친 때 신랑측에서 신부의 여성친족에게 옷/옷감, 소품 등을 보내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예물 항목에서는 지역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지역 모두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품목이 다양화·고가화 되었다.

혼수용 세간은 두 지역 모두 60·70년대까지 신

부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품의 개념으로 의류가 위주였으나 80·90년대에는 가구, 가전제품 등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두 지역간의 차를 보면 혼수용 세간 중 요·이불의 경우 서울에서는 신부측이 준비하였으나, 경상도에서는 재료는 신랑측에서, 바느질은 신부측에서 하였다. 또, 가구류의 경우 서울에서는 신부측이 준비하였으나, 경상도에서는 신랑측이 준비하였으며 신부측은 통상 혼수용 세간보다 예단에 치중하였다. 그러나 80·90년대에는 이러한 지역 차가 거의 사라지고 두 지역 모두 가구류를 신부측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예식과 예복의 경우 서울과 경상도 지역에서 모두 개화기 이후 서양 의식의 영향을 받아 전통양식에서 전통과 서양식의 절충식으로 변해가면서, 점차 전통 의식이 생략되고 이벤트성 행사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약혼식에 대한 태도에서 두 지역간에 차이를 보여, 서울 지역의 경우 60, 70년대를 전후하여 약혼식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반면, 경상도 지역에서는 약혼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함 받는 의식은 두 지역간에 차이를 보였으나, 70년대 이후 점차 의례가 사라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함진아비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결혼 예복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신부 예복은 전통적인 원삼, 활옷에서 한복에 베일을 쓰는 과도기를 거쳐 드레스 형태로 변화되었고, 신랑 예복은 사모관대에서 일반 양복을 거쳐 모닝코트 등의 예복으로 변화되었다. 폐백의 경우 두 지역에서 모두 점차 양가(兩家) 참여 경향이 나타났으며, 예복은 치마저고리에 수건을 드리는 것에서 원삼·활옷과 사모관대를 갖추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즉, 산업화 이전 지역마다 다른 혼례 문화의 특성이 있었으며, 오늘날에도 부분적으로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인구의 도시집중화와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타 지방색이 유입되면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되거나 소멸되었고, 지역·혈연 공동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의례는 산업화·도시화의 영향으로 이벤트의 성격으로 변화하여 현재 그 지역성은 단편적으로만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두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가 계속되어 이를 비교·분석한다면 근·현대 한국의 혼례풍속에 대한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김명나, 이정우(1999). 도시주부의 혼례의식·혼례행동 및 혼례만족. *대한가정학회지*, 37(6), 41-57.
- 김모란(1995). 한국사회의 혼인거래 관행의 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9(가을호), 533-558.
- 김시덕(2001). 혼례전통, 다 바뀐 것은 아니다. *민속문화*,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가. 집문당, 81-102.
- 김일미(1972). 조선의 혼속 변천과 그 사회적 성격. *이화사학연*, 4, 31-67.
- 김정근(1998). 한국인의 혼수규범과 혼례가구의 조절과 변천에 관한 연구: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근, 홍형욱(1996). 혼례변화에 따른 혼수기물과 혼례가구의 변천 I 晦: 고대이후 조선시대까지. *대한가정학회지*, 34(1), 189-202.
- 문옥표의(1999). *朝鮮時代 冠婚喪祭*.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박혜인(1991). 한국전통혼례의 연속과 단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도서출판 또하나의 문화, 17-73.
- 박혜인(1988). *韓國의 傳統婚禮研究-晦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박혜인(1987). 한국 전통혼례의 가족사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정옥(1982). 조선시대 혼례 복식연구(I). *자원문제 연구*, 1, 135-145.
- 장철수(1995).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40.
- 장하경(1996). 한국사회변동에 따른 혼례관행의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48-160.
- 정복남(2000). 서부경남지방의 전통혼례에 관한 민속학적 연구: 1920-195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6), 871-886.
- 정용선, 김경연, 김득성(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 朝鮮王朝實錄*.
- 增補文獻備考*.
- 조희선, 류미현(1999). 사례를 통해서 본 혼수관행문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79-190.
- 홍나영, 최혜경(2001). 서울지역의 혼수 및 예단 풍속에 관한 연구. *서울학 연구*, 18, 179-226.
- 황경애, 이길표(1994). 혼례(婚禮)의 변천(變遷)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63-174.
- 국립국어연구원(1999a·b·c). *표준국어대사전* 上·中·下. 두산동아.
- 뉴스플러스 173호(1999. 3. 4). 20세기 한국의 풍물 풍속사 ⑧결혼
- 서울 六百年史 <http://seoul600.visitseoul.net/>
- 조선일보 (1994. 4. 6) 호텔 결혼 6월부터 허용
- 조선일보 (1994. 4. 14) 얼굴 붉히는 함값 수백만원까지(결혼 문화 10)
- 조선일보 (2001. 9. 3) 2001 '웨딩풍경' 따라가기

(2002년 5월 29일 접수, 2002년 11월 11일 채택)